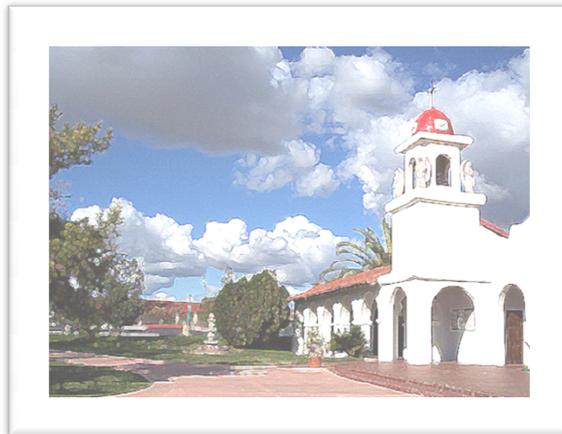


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

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

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| Tel (661) 871-9190 | 1305 Water St., Bakersfield, CA 93305
 Fax (661) 873-7286 | 홈페이지 www.sanclementemission.org | 통권 제 25 권 13 호



주일 미사: 오전 8 시 (한국어, 영어), 오전 9 시 30 분(영어), 오전 11 시 30 분(스페인어)
 한국어 평일미사: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
 토요일 미사: 오후 6 시(스페인어). 성경공부: 주일미사 (오전 8 시) 후 친교실
 성체조배: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부
 고백성사: 월, 화, 목요일 (오후 5:00 - 5:30). 금 (오전 9:00 - 9:30)
 임원회의: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, 평협회장: 박영우 니콜라스 (661-703-5957)
 성당사무실 시간: 월, 금요일(오후 2 - 8 시). 화, 목요일(오후 2 - 6 시).

미 사 성 가	입당 ()	봉헌 ()	성체 ()	파견 ()
-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<미사 관련 안내>

사순절 기간동안 복음 환호송의 후렴부분은, 한국어 후렴구 대신 영어노래로 할 예정입니다.

◎ Praise to you, Lord, Jesus Christ, King of endless Glory!
 ('그리스도님,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.' 부분)

*신부님께서 선창하시면, 모든 분들이 따라부를수 있도록 합니다.

복음환호송

◎ Praise to you, Lord, Jesus Christ, King of endless Glory!

○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,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.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,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.

◎ Praise to you, Lord, Jesus Christ, King of endless Glory!

성소를 위한 기도

- 좋은 목자 예수님,
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
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.
- 비오니, 오늘도
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
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,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.
-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,
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
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
-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
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
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.
- 주님,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
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.
-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
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.
- ◎ 아멘.

◆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◆

날짜	미사해설	독서	복사
3/29	이 마틸다	이 바오로	허 벤자민, 박 다니엘
4/5	유 요한	김 헬레나	허 벤자민, 박 다니엘
4/12	이 클라라	이 바오로	허 벤자민, 박 다니엘
4/19	이 마틸다	김 헬레나	성인복사

*'제 1 독서' (한글)/ '제 2 독서' (영어).

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

주일미사	봉헌금	2 차 봉헌	교무금
3/22	\$ 430.00	-	\$ 450.00

*백합꽃 봉헌금: \$ 40.00. *2 차 봉헌: 매월 첫째, 셋째 주일미사.

한국어 평일미사: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

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.

사순절 '십자가의 길': 매주 수요일 '저녁 미사 (7 시 30 분)' 후

사순절동안 매주 '수요일 저녁 미사 (7 시 30 분)' 후 '한국어 '십자가의 길' 있습니다.

성주간 및 부활절 미사 안내

성목요일 (4/2) 미사 및 성체조배: 저녁 7 시
 성금요일 (4/3): 오후 3 시 (십자가의 길), 저녁 7 시 (Passion of the Lord).
 부활 성야 (4/4) 미사: 저녁 8 시. 부활대축일(4/5) 미사: 오전 8 시

'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' 를 부탁드립니다.

주위에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이
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

말씀의 이삭

어머니께 청하오니

허영한 요셉 |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

우리가 추구하는 '교회일치'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겠지만, 제가 외국 여행 중에 주일 미사를 참례할 때마다 느끼는 감동에는 또 다른 '일치의 감동'이 있습니다. '일치의 감동'이라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언어도 안 통하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마치 내 집처럼 들어가 나의 가족들을 만난 것처럼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한 시간 가량을 보내고 나오는 그 기분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'알렐루야, 아알렐루야야, 알렐렐루야야'를 노래하고 나면신기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.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도 안 통하는 이 사람들과 제가 그 오랫동안 같은 노래를 부르며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'일치의 감동'이 만만치 않게 강렬합니다. 이 '일치의 감동'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에게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.

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넘는 그 오래된 기도문을 우리는 지금도 거의 그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. 성삼일의 첫날목요일의 '주님 만찬 저녁미사'에서 영성체 후에 성체를 옮겨 모시는 행렬 때 '입을 열어 구세주의'를 노래합니다. 이 노래는 라틴어로 '팡제 링구아' (Pange lingua)라고 하며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은 찬미가이므로 약 800년 된 노래입니다. 이 선율을 바탕으로 후대 작곡가들은 여러 아름다운 성가들을 작곡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성금요일에 바치는 '주님 수난 예식' 때 사제가 "보라 십자 나무"라고 선창하는 '에체 리눔 크루치스'(Ecce lignum crucis)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최소한 1000년은 넘는 성가일 것입니다.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은 성가가 그대로 전승되었다는 것을 통해서도 저는 '일치의 감동'을 느끼게 됩니다. 그 오래전 저 멀리 유럽의 성당에서 불렀던 노래를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.

공동체 소식

한인공동체 평협 임원회의: 4/14 (화) 저녁 8 시

4 월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모임은, 둘째 목요일인 4 월 14 일(화) 저녁 8 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.

소구역 공동체 모임: 4/19 (주일)

봄 하미이카 축제일정과 겹치므로,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.

봄 하미이카 축제: 4/19 (주일) 오전 9시-오후 6시

봄 하미이카 축제가 4 월 19 일 (주일)에 열릴 예정입니다. 축제를 위한 물품(포크, 수저, 접시, 물, 컵 등) 후원을 받습니다. 매주 주일 영어미사 뒤에 물품을 수거하고, 본인이 성당사무실로 제출하셔도 됩니다.

4 월 친교모임 일정: 4/26 (주일) 오후 5 시

4 월 한인 공동체 친교를 위한 저녁모임은, 4 월 26 일 (주일) 오후 5 시입니다.

부활절 장식을 위한 '백합' 봉헌

부활절 제대장식을 위한 '백합 또는 헌금' 봉헌을 3 월 23 일부터 받습니다. 성당사무실 또는 이 그레이스 재무부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.

산클레멘테 본당 회계보고 (2014 년 1 월-6 월)

수입: \$87,437.50. 지출: \$101,777.15. (순수입: \$ -14,339.65)
 자세한 내역은 미국주보(3 월 22 일)를 참조해 주십시오.

성모의 밤: 5/24 (주일)

환영합니다.

새로이 예비자교육에 참여하시고 계신 신이운 자매님을 환영합니다. 예비자 교육과정을 잘 마치시고,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

사순 시기 동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. 14처를 옮길 때마다 노래하는 "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."는 그 가사와 선율이 최소한 700년이 넘는 것입니다. 가사는 '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' (9월15일) 때 노래하는 성가 '스타바트 마테르'(Stabat Mater)이며 음악 애호가들에게는 초기 고전주의 이탈리아 작곡가인 페르골레지의 명곡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"아들 예수 높이달린 십자결에 성모서서 비통하게 우시네"로 시작하는 이 부속가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그 밑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이 성가가 성금요일 일주일 전 금요일에 불렀다고 합니다. 이제 다가오는 성주간 동안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할 때 세계 곳곳의 많은 신자들이 오래전부터 그랬듯이, 십자가에 매달린 아들 예수님을 보고 비통해하시는 성모님의 마음으로 길을 따라갈 생각입니다.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을 함께 느끼며, 또 다른 '일치의 감동' 후에 맞이하는 부활절이 매우 특별하리라 기대해 봅니다.

<서울주보에서>

기도한다는 것은
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.
 기도는 예수님에게 전념하는
 영혼의 몰입입니다.
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
 기도도 더 잘하게 됩니다.
 - 복자 샤를 드 푸코 -